

광주일보·조선대병원 공동기획

암 아는만큼 이긴다

〈14〉부인암

유방암 자가진단으로 조기에 잡아라

에스트로겐은 사춘기 이후 폐경 전까지 가임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여성의 육체적 발육, 배란과 임신 등 생식 내분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호르몬이다. 여성의 뇌에서 뼈까지 신체 거의 모든 부위에 작용한다.

대뇌안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호르몬에 의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주로 작용하는 대상 기관은 자궁내막과 난소, 그리고 유방조직이다. 이렇듯 필수적이고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제대로 된 제어기전이 깨질 경우 이 호르몬에 의해 주 작용기관에 여러 종류의 부인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부인암의 종류 및 발생률

현재 우리나라 부인암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갑상선암이며 다음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순서이다.

갑상선암인 경우 예후가 상당히 좋은 반면 그 외의 암들은 갑상선암에 비해 예후가 나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대단히 높다. 특히 유방암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시점이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가임기이므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방암이 일정부분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는 여성의 경우는 난소암이 발생한 경우 유방암이 동반 발생할 가능성이 50%가 넘는 경우도 있어 이 연결고리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궁내막은 에스트로겐의 주 작용기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경우 증식증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암성변화를 할 수도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인 암의 검진

▲유방암=많은 여성들은 만져지는 종물, 유축분비, 유방통이 있을 때 병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증상들을 발견할 수 있



안태규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정기검진에서 유방암을 진찰된 50대 여성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갑상선암-유방암-자궁경부암 順 빈도 30~40대부터 부인암 정기검진 받아야

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방 자가 검진이며 이것은 유방암 검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검사이다. 검진시기는 생리가 완전히 끝난 후 3~5일이 가장 좋다. 이때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가 검진 및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만약 폐경 나이는 되지 않았으나 단순 자궁 적출술(난소가 남아 있는 경우)을 시행해 생리혈이 없는 경우에는 한 달 중에 유방의 크기가 가장 적어지는 날짜를 유방 자가 검진 날짜로 정하고 달마다 빠트리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시행하면 된다.

검사방법은 먼저 거울에 비추어 움푹 패인 곳이나 염증같이 빨간 색깔변화가 있는지 또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그 후 비누칠을 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쓰다듬다 보면 딱딱한 종물을 느낄 수 있으며 액와부 또한 놓치지 말고 만져 봐야 한다. 이러한 자가 검진은 2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30대에는 유방 자가 검진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우리나라의 유방암 최고 발

생연령이 45~49세인 점을 감안해 40세부터는 정기적인 자가 검진, 초음파 검사, 유방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난소암=난소암이 있는 경우 질출혈과 통증 같은 부인과 증상이 없으며, 난소 자체가 복강안에 떠있는 것 같이 존재하므로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는 한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발견했을 당시에 상당한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예후도 매우 나쁘다. 하지만 이러한 악성 난소암도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난소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규칙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있으며 만약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특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궁내막암=제일 큰 특징은 질출혈이라고 할 수 있다. 폐경 전에 어떠한 출혈이 보일 경우 반드시 부인과 진찰을 받아서 자궁경부암, 내막암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궁내막암도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

인 초음파가 필수적이다. 유방암이 있는 경우 치료 과정에서 자궁내막암의 발생을 주의해야 하는데, 유방암 치료 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타목시펜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자궁내막암의 발생률이 1000명당 2명 정도로 무시할 수준이 아니므로 치료후 내막의 정기검진도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30~40대부터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세 가지 부인암에 대한 검진을 동시에 받는다면 들어가는 부인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적절한 치료 또한 가능해져서 결국 사망률을 줄이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임여성에는 일정기간마다 한 번씩 자궁·유방·난소에 대한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류의 암중 하나가 발생했을 때 호르몬과 관련된 다른 장기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치료 후에도 관계되는 장기에 대한 암 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철저한 검진이 필요함은 재차 강조한다 해도 부족함이 없다.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안태규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눈 속에 끼는 안경’ 렌즈삽입술 각광

부작용 없이 근시·난시교정 한번에 라식·라섹수술 없이도 안경 벗는다

라식과 라섹 등 시력교정술이 날로 다양화되고 진화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각막 절개를 최소화해 부작용이 적은 물론 회복이 빠르고 근시나 난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렌즈삽입술’이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경의 불편함 때문에 한번쯤 시력교정술에 대해 생각 해봤을 것이다. 시력교정술은 애초 ‘각막 절개술’에서 ‘레이저 시력교정술’로 변화돼 왔고, 근래엔 눈 속 미세한 이상까지도 측정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력 교정술’이 일반화됐다.

여기에 라식 수술이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특히 고도근시)을 위한 ‘안내(眼内)렌즈삽입술’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안내렌즈삽입술은 시력의 질적 만족도가 우수하고 조절력을 보존하므로 근거리 장애가 없다. 또한 각막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성 및 예측성을 자랑하며, 렌즈를 제거하면 언제든지 원상복

귀가 가능하다.

안내렌즈삽입술 중 자기 도수에 맞는 특수 렌즈를 홍채에 고정하는 알티산렌즈의 경우 각막 두께가 매우 얇거나 고도근시 환자, 각막에 혼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식·라섹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로 시술되던 ‘알티산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5~6mm정도 절개한 뒤 자기 눈 도수에 맞는 렌즈를 삽입하는 것으로 일종의 ‘눈 속에 끼는 안경’이었다. 이 수술은 그러나 절개 부위를 봉합해야 하므로 시력 회복이 1주일 정도 걸리고, 난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최근 알티산 렌즈의 단점을 보완한 알티플렉스 렌즈 삽입수술이 도입됐고, 여기에 난시 교정의 단점까지 보완한 ‘알티플렉스토크 렌즈’ 삽입수술이 이어졌다. 호남지역에서는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이 알티플렉스토크 렌즈 시술을 최초로 시작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 57% 그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이 목표 대비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는 광주전남지사의 모금실적은 현재 15억7여만원으로 모금 목표의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모

금 목표액은 28억1000만원(광주 9억4000만원, 전남 18억 7000만원)으로 광주전남지사는 오는 28일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지정,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지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 이달 말까지 무등산 중심사 입구 급차 봉사와 광주시 5개구 주요사거리 출근길 거리 캠페인, 재래시장에서의 사랑의 떡국나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모금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엘병원 해외환자 유치 팔 걷었다

전용병동 개설·통역사 배치 등 관리 시스템 체계화

시엘병원(대표원장 최범재)이 해외 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시엘병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리플렛(영문, 중문, 몽골어)을 제작하는 한편 전문 통역사 전담 배치(중국어 2명, 몽골어 1명, 러시아어 1명, 영어 1명), 해외 환자 전용병동 개설 등 외국인 환자관리 행정시스템을 체계화했다. 특히 해외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광주에 위치한 시엘병원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별도의 지도를 외국어로 제작했으며, 내원 환자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까지 시엘병원에서 진료료 받

은 해외환자는 미국인 2명, 캐나다인 1명, 몽골인 10명 등 12명으로 이들은 내과 또는 산부인과와 진료 및 시술·수술을 받았다. 또 현재 해외 환자 중 한국을 방문해서 시엘병원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대기중인 환자가 2월 중순까지 15명이다.

최범재 시엘병원 원장은 “국내 의료기관과 포화상태에서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의 개인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다른 실력을 토대로 연구중심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해외 진출에 성공한 만큼 해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01126-중-20720호 광고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전통윤리에 근거를 두고 생활을 하며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생활 양식도 변화해서 밝은 표정이 있는 쌍꺼풀이 좋다고

을 수 있다. 짙는, 쌍꺼풀 풀어짐, 수술 부위 흉터가 생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통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서구적이 얼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표정이 있는 동양적인 쌍꺼풀을 만드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쌍꺼풀 수술이란 중검 예정선의 피부를 검판 또는 안검거구의 적당한 부위에 유착시키는 조작이다.

수술방법은 피부 비절개는 매물법이라고도 하며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희망하는 경우이며 수술 후 상처가 용이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심리적 부담이 적고, 젊은 여성들은 절개수술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안검 피부가 과다하거나 안검하수, 안검, 안와 지방의 과다 또

는 반흔이 있는 상안검 등에서는 피부절개법이 적절한 수술이라고 생각된다.

수술전 시력검사, 안검하수의 유무, 좌우의 균형을 관찰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며 환자가 이해하고 승낙하는 것이 수술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물론 수술후 경과에 대한 요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술후 1주일 은 세면이 불가능하며, 목욕은 발사 후 3일후에 안검의 부종이 3개월 정도 되어야 거의 없어지며 6개월이 되어야 수술자국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할 것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062-227-3777 무등극장 앞



성형외과 김 영 길

쌍꺼풀 수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같은 쌍꺼풀이라도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의 쌍꺼풀이 있고 안면골의 골격이나 눈의 연부조직이 서양인들과 다른 동양인으로는 눈만을 서구인에 닮으려 해도 부자연스러우며 또 다른 기관과의 균형도 잡히지 않